

#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

박명희 · 김창숙 (조선 간호대학)  
서영숙 (동신대학 간호학과)  
서희숙 (동강대학 간호과)  
노현신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목 차

|                  |            |
|------------------|------------|
| I. 서론            | V. 결론 및 제언 |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영문초록       |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격변과 시련의 시기일 뿐 만 아니라 정서적 동요의 시기이며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이다. 부모에 대한 의존심과 독립심 사이의 갈등과 자발성과 자율성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담감이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 속에서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나 적응상의 애로점 등은 청소년에게 예기치 않은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을 일으키기 쉽다(김계숙, 1989). 이 시기의 청소년은 급격한 사회변화, 첨단과학 문명의 발달 및 학업 위주의 학교 교육,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등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아와 그 방어를 압도할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하양숙, 199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 문화의 유입,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붕괴등

사회 및 가족구조와 가치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이광자, 1983). 청소년기의 연령 구분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세에서 21세까지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따르는 특수한 심리적 문제에 따라 편의상 초기 청소년기(12-14세), 중기 청소년기(15-17세) 및 후기 청소년기(18-21세)로 나누고 있다(Hurlock, 1949 ; Erikson, 1958 ; Werkman, 1974). Werkman (1974)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기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춘기적 신체변화 및 이에 대한 적응과 성적 정체감의 수립, 심리 사회적 변화이며 중기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직업선택, 대학진학 및 실제적인 가정 및 가족과의 분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적응이 중요한 문제가 되며 후기 청소년기에는 주체성과 자율성의 확립, 직장문제 및 이성애적 적응과 친밀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한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문제가 흔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초기 청소년기에서는 유 소년기의 장애가 계속되거나 학습장애와 정신신체 질환등이 나타나며 중기에는 학습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나타나고 말기에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자살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Werkman, 1974).

가정은 환경으로서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족 집단은 청소년의 인간성을 키우는 기본 집단으로서 청소년기의 사회화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이부영, 1987).

가족이란 친족이라는 연계성을 가지고 모여 사는 생물, 심리, 사회, 문화적인 공동체이며 구성원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과 신념을 전달하며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는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의 일차 집단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므로 전 인격이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리적이고 타산적일 수 없으며 가족중의 한 사람이 불 건강 상태에 처하면 전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김금자, 1987). Friedman(1986)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요구 충족과 인성유지,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가족의 근본기능이라 하였고, 정서적 지지 기능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았으며 사회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즉, 가족은 살아있는 개방체계(Open System)로서, 가족구성원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단위이다.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은 여러가지 적응기제와 능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와 생활변화에 완충작용을 하는 반면 가족 역동에 문제가 있거나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적응 능력과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못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아진다(이부영, 1987). 그러므로 가족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청소년은 모든 생활 면에서 혼동을 하게 되고, 심한 정서변화와 역할 혼

동으로 인하여 우울등의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음주, 흡연, 약물복용, 가출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안양희, 1988 ; Materson, 1968). Carplan(1976)은 가족을 하나의 지지체제로 보았으며, Hamberg는 가족은 상호작용을 하며 그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적응하도록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적 지지체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지지 체제로서의 가족은 스트레스 혹은 위기상황에서 가족 성원이 적응에 실패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우울, 불안,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며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체제이다(심문숙, 1989). Hymovich(1974)에 의하면 가족의 주요 기능은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며 개인적, 집단적으로 그 가족 구성원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요구 충족과 안정화를 이루는 정서적 기능은 구성원간의 친밀성, 결합, 지지정도로 나타난다(심문숙, 1989).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획득되며 가족의 친밀성이 없으면 불안, 우울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Mueller(1980)는 우울은 강한 사회적 지지로 예방된다고 하였다. Friedman(1986)도 가까운 지지망 관계의 지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우울 감소에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와 이들에게 나타나는 우울 정도를 알아보고 가족지지와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청소년기의 효과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간호전략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청소년기의 원만한 적응을 돕기 위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에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를 분석한다.
- 3)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를 분석한다.
- 4)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3. 연구 가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을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1) 청소년

청소년이란 성장 발달 과정상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연령으로는 12세에서 24세 사이에 속하며, 이 시기는 인생중에서 가장 변화가 풍부한 격동의 시기이다(하양숙, 1990). 본 연구에서는 광주 시내에 소재하는 3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08명의 남녀 학생을 말한다.

#### 2) 가족지지

가족지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제가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돌보아 주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는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 기능을 의미한다(Hymovich, 1974).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능인 가족의 친밀성, 결합, 지지정도과 가족의 의사소통인 가족의 관계, 역할에 대한 표현, 상호작용, 개방성에 대한 지각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oos(1974)의 F.E.S.(Family Environment Scale) Form R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 3) 우울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는 감정상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인 사건

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반응성 우울을 말하는 것으로, Zung의 자가평가우울 도구(Self-Rating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광주시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일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 1. 청소년

청소년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라틴어 *Adolescere*로서 "성숙으로의 성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모두 지니는 양향성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의 결여로 모든 면에서 양향성을 띄기 쉬워서 행위 자체가 때로는 아동과 같고 성인과 같을 뿐 아니라 이들을 대하는 학교, 가정, 사회가 청소년들도 하여금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역할을 또다른 경우에는 성인의 역할 즉 이중적 역할을 기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양향성을 띤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이유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김문실, 1985).

따라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중요한 발달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달과제는 첫째, 장래의 책임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 둘째, 그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셋째, 이성과의 사이에 만족할만한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 넷째, 이 시기에 일어나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 후에 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다섯째, 성인으로서 가질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청소년기의 주체성과 친밀감형성에 수반되는 발달상의 요구라고 하였다(김명애, 1984).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보면 신체적으로 성호

르몬의 분비증가로 인해 이차적 성징출현과 이에 따른 본능적 충동의 증가로 정신적인 평형상태에 동요가 오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올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숙과 정신 성적 발달에 의한 정신생활의 동요를 수반하는 자율화, 개인화 및 독립화가 일어나며, 사회적으로는 가정을 떠나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습득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심한 혼란과 복잡한 변화를 겪어되는 특성을 가진 인간발달 단계상의 정서적 격동의 시기, 갈등과 스트레스 시기이며, 또한 내적 및 외적 경험을 통합하고 성숙의 기초를 형성하는 자기완성의 시기라고도 불려져 정서의 분열과 통합이 교차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Freud, 1928; Werkmann, 1974; Neuman & Neuman, 1976; Rice, 1978; 나철外, 1976; 홍경자, 1984; 남승희, 1992; 신성래, 1997; 김수지, 노춘희, 1990).

청소년의 이해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10대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유로워하려고 시도하며 전형적으로 그들의 동성의 부모에 대한 분노가 점차 자라는 것을 느끼는 반면에 이성의 부모에 대한 근친 상관적 감정은 보다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게 되는 오디프스적 감정의 분출 경험에 의한 충동에서 도주하려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앞에서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안전감을 느낀다 하였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이 애착되는 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감정과 충동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책략으로 금욕주의를 들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혼란이나 결사적인 방어 및 책략들은 실제로 정상적이며 예기된다는 것이다(Freud, 1928; 하양숙, 1990).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독립의 불완전, 미완성은 가족 특히 부모의 성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애정이 깊으면 협조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지배적인 부모를 가진 청년은 비협조적이며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인 행동이 많다고 하였다(김계숙, 김희숙, 1995).

청소년의 이해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을 인지에 대해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 Piaget의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명제적 논리를 다룰 줄 알고 비유를 이해하며 사고에 관한 추리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인지발달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상징이나 추상화를 추리할 수 있는 인지기능의 진보된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사물의 속성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설이나 가능성, 그리고 이상 등의 추상적 개념과 생각을 다룰 수 있게된다 하였다. 따라서 자기자신의 생각 그 자체를 반성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처해있는 세계, 그리고 생의 의미 등을 생각해보며 새로운 견해를 얻기도 하게되며, 이러한 인지발달은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거를 회상하며 또 미래의 가능성을 추상할 수 있게 되므로 장래 자기가 택할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계획, 생의 목적수립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발달의 단계에 도달한 청소년은 추상적이고, 미래 중심적이며, 자기 반성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중요한 발달과제인 자아정체감의 확립도 아울러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하양숙, 1990; 홍경자, 1984; 김계숙, 김희숙, 1995).

청소년의 이해에 필요한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문화적 이론의 주장을 중심으로 보면 Mead는 청소년 반항의 경험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대의 변화에 의해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성장을 사회적 기대에 대한 개인적 반응으로서 계속적인 과정, 그리고 문화적 현상으로 보았다. 인류학자들은 청소년기가 성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만 아직은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시기이며,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사회로부터 주어질 때 끝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은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만 12세부터 성인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20세 전후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이들의 독립시기가 연장되므로 청소년의 연령이 길어져 12세에서 22세까지를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성인으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수록 청소년기는 긴장이 좀 더 감소되고, 모호함도 감소하는 시기가 될 것이므로 문화의 변화가 많을수록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의 격차가 많아진다는 것이다(이상주, 1983).

문화적 이론은 청소년 행동을 연구한 인류학자들에 의해 다른 문화권내의 청소년을 연구함으로써 원시적 문화가 현대사회의 10대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주는 시기였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어 우리가 청소년의 문화를 보는 관점은 단지 기성세대의 정통적인 문화에 비해 청소년의 것이 이질적인 특이한 양식이라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있다(하양숙, 1990; Atiken, 1978).

## 2. 우울

우울증은 다양한 정신증상과 신체증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신체 질병과 관련되는 감정반응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민성길, 조강주, 1977).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다른 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닌다든지, 음주, 약물사용, 또는 두통, 복통 등의 여러 가지 신체증상 등은 실제로는 저변에 깔린 우울증의 표현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정신증상의 예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의 경우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우울의 변형된 형태가 무단결석, 도벽, 자살, 수면장애, 물질남용, 성적이탈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Milligan 外, 1997; 박명희, 1991; 김수지, 노춘희, 1990).

18세의 오스트리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신체적 활동,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위와 이들 행위이행에 대한 지각된 장애와 관련된 A형 행위, 우울, 자기효능 등의 정신 사회적 변수의 관계 연구에서 보면 여자 흡연가와 무질서한 음주가에서 우울정서는 신체적 활동과 남녀 모두에서 역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건강행위의 조사에서 남녀 모두

에서 우울정서가 자기 효능감과 역상관을 보이고 정상 청소년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관련 행위에 대한 우울 즉, 지각된 장애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 자기효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는 제안을 하였다(Milligan 外, 1997).

우울증은 의기소침의 상태, 흥미나 의욕상실, 활동저하 등으로 정의되며 '무겁게 내리누르다(to press down)'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deprivere'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증상(sign), 증후(symptom), 증후군(syndrome), 정서상태(emotional state), 반응(reaction), 질환(disease)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Stuart & Sundeen, 1987), 우울증은 DSM III에서는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s)에 DSM III-R에서는 기분장애(Mood Disorders)에 포함시켜 분류되고 있다(이정균, 1988).

정신과학에 근거를 둔 의학적 틀에 의한 문헌상의 우울현상의 분류를 보면 근본적으로 극심한 일차적 우울과 신체적 질병치료에 의해 생긴 이차적 우울로 분류하고 있으며 암과 같은 질병에 의한 이차적 우울은 정상적 슬픔에서 심한 우울상태의 범위를 가진 하나의 위기적 반응으로 보는 질병의 진행과정이나 치료, 질병과정과 관련된 증상과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Holland, 1989). 유방암 진단을 받은지 3~7개월 사이의 79명의 여성에 대한 우울의 본질, 범위, 신체적 곤란 증상과 기능상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9%가 우울장애, 24%가 우울증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Pasacreata, 1997) 암진단과 관련한 정상과 비정상 우울간의 경계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이유는 정상과 비정상 증상을 정의하는 경계를 한계짓기 어려운 것으로 생명에 위협을 하는 의료상황에 당면하여 슬프게 느끼고 우울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oyd & Weissman, 1981).

정신과적 정서장애로 진단한 우울은 정도가 심하고 해소되지 않는 내적인 갈등이며 물론 자살이 우울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동기에서와는 달리 자살의 가능성이 높고 성인에서와 같은 신경증적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정신병의 초기 증

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부적응인 우울과 자살경향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여성들에게 히스테리성 인격과 우울성 인격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인격 유인을 가진 여성들이 흔히 심적 갈등을 체면 손상이 되지 않는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하여 히스테리성 증상들을 흔히 호소하였던 것과, 우울 증상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때 자살사고나 자살기도를 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가 많았던 사실과 서로 연관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신 역동학적으로 열등감이나 가정내 갈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산업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고도의 경쟁적 사회풍토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적 동일시 형성에 저해요소가 됨으로써 경쟁 대열에서의 낙오자들에게는 열등의식을 조장시켜 주게 되므로 청소년기에 중요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나철外, 1976 ; Kolb, 1973).

아동기에도 경험되고 있는 기분이 울적 하다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인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달단계로서 청소년기의 개별화와 독립성을 성취하려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는 내적, 외인적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시기인 바 우울이나 자살은 의미 있는 대인관계의 상실, 대인관계의 부조화나 심한 생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며 청소년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면 자살 시도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국내 종합병원에 내원한 청소년기 환자 중심으로 정신과적 응급질환에 대한 정신역동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임상적 특징을 비교 평가한 결과, 남성응급환자에 나타난 증상으로는 불복종, 비행행위와 같은 거부적 반응을 많이 보여주었고 반면에 여성들은 자살사고나 우울증상 또는 히스테리 증상을 많이 보여주어 진단 및 임상증상으로서 우울은 응급환자중 후기 청소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나철外, 1976). 타 연구에서와 일치한 결과로 사회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이 포함된 경중의 경우 여자환자율이 높고(Kolb, 1973) 신경증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입원치료율

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창섭, 1976).

청소년의 우울이나 자살기도를 방지하는 중재방법으로서의 운동요법의 효과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를 보면, 평균 주당 4~5시간씩 12~17세의 우울증과 자살경향이 있는 청소년 환자들에게 에어로빅과 미용체조 운동치료반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우울증상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적인 조치인 문제해결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같은 치료방법으로서의 운동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저렴하고 비침입적인 치료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운동요법은 최대량의 산소섭취, 신체적 작업능력 증진, 체중감소와 금연, 근육긴장도 증가, 식욕증진 등의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긴장과 불면증 감소,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김수지, 노춘희, 1990). 또한 서울시내 공단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와 경기도 모 여대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불안과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 양군에서 불안과 우울 평점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과 관련된 사회정신의학적 요인으로 여성근로자의 경우 종교 유무에 따른 점수는 종교가 없는 경우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정성덕, 1983). 이는 우울감의 해소 방법으로 환자가 감정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속적인 격려와 인내, 지지를 해주도록 하는 간호 중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증과 관련된 또 다른 대표적인 발달단계적 시기로 만성 질환자의 노인기를 다룬 연구로 정년 퇴직여부에 따른 중년남성의 우울과 불안정도의 비교연구에서 우울과 관계가 깊은 일반적 특성은 나이와 퇴직후 기간으로 퇴직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퇴직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김미선外, 1990), 태영숙(1994)은 류마치스성 관절염 질환으로 관절통증이 심하고 기형과 경직이 초래되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노인환자의 우울의 원인으로 통증이나 질병자체에 대한 부적응, 자식에의 치료비 의존에 대한 부적응 등에 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신체적 문제가 사회심리적 문제

를 유발하는 경우로 노인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만성질 문제가 있는 노인이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이미화, 1990; 전시자, 1998; 김수지, 고성희, 1989).

### 3. 가족지지

오늘날 가족이 인간성 양성과 회복의 과제를 담당하고 있고 애정적인 관계, 안식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제도 중 가장 오래된 제도로 모든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간호학에서 가족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유사 이래로 가족 안에서 간호가 이루어져 왔고, 또 많은 문헌에서 가족간호 실무를 이끌어 가는 개념적 배경으로 환자의 중요한 환경인 가족을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사회적 체제로 보며 또한 가족단위 '자체'를 수혜자로 보고 있으며(Gilliss, 1991), 개인의 건강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족구성원의 질병은 가족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Johnson, 1988).

오늘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질병의 원인, 치유, 회복, 적응과정의 변수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남가실, 1988). 현대과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질병의 양상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최근의 건강증진의 목표는 대상자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정상기능을 유지, 회복시키며, 건강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다.

가족지지만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제가 가족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주요기능의 의미로(최영희, 1983) 가족지지 행위란 환자에게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이 환자를 돌보아주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주고, 환자가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로(Cobb, 1976) 정의하여 가족지지는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한 요소로 설명될 수 있겠다.

가족지지와 치료지시 이행정도 간의 순상관 관계를 보여준 연구로 정여숙(1991)은 가족지지가 혈액투석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고 박원숙(1996)도 유사질환 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삶의 질간에 통계학적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또한 강현숙(1984)과 최영희(1984)는 가족지지와 환자역할수행과의 관계연구에서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가족지지와 자가간호활동과의 순상관계가 나타난 연구결과는 산업재해로 인해 흉추 10번째 이하의 척추가 골절되어 하반신 마비된 환자에서(김순오, 1986) 또한 고관절 부분 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재활단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요법이 환자의 역할행위 이행 증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박오장 등(1998)이 종합병원에 입원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요법 중재후 역할행위이행은 실험군의 실험전후 성적차가 대조군에서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요법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역할행위이행을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지지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환자역할 행위이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지 못하였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어 가족지지와 환자역할 이행과의 관계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한인경, 1990).

### 4.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노인환자의 독립적 일상생활 활동수행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한 연구와 가족지지의 결여가 청소년들의 이상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우울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역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지각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역상관관계 성립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지각된 가족지지

가 하나의 자기효능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져 있어(구미옥外, 1994; 최원희, 1996) 이와 같은 가족지지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입원한 60명의 만성질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에서(김창숙, 1991), 고령의 고관절 부분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후 재활단계에 있어(박원숙, 1996) 중요한 환경적 요인인 가족지지와 정신적 요인인 환자자신의 우울정도가 자가간호활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김란, 박명희, 1993), 경기도 지방 7개 병원에 입원한 암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정석자, 1996)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게 나타났고(태영숙, 1985; 심문숙, 1989) 가족지지와 우울과는 상관관계가 매우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정석자(1996)는 암환자의 간호계획에 가족을 지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울은 여러가지 암환자의 정서반응 중 가장 흔한 정서상태로 면역반응, 생존율에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며 암진단을 받고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환자들이 질환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주어진 능력 내에서 최고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균형이 깨뜨려진 가정생활은 청소년 환자에게 정신 방어기전인 동일시 형성에 장애를 주고 독립심을 키워 나가는데 위협을 주게되며 파피된 절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서 인격 성장 발달과정에서 초자아 형성을 통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건전한 동일시의 대상이 상실됨에 따라 성인이 된 이후에 정신병이나 신경증 그리고 사회변질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 하였다(Kolb, 1958; Erikson, 1956). 주체성이 형성되는 사춘기나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망이나 이별은 주체성의 혼돈을 일으키므로써 정신병적 발병에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지지의 결여가 청소년들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다는 문헌을 보면 가정폭력과 관련된 청소년들

의 이상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연구와 가정폭력에 따른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공포, 우려, 공황, 악몽, 불면, 빈뇨, 발한, 피로, 초조, 불안성향 및 권태, 건강염려증, 위축, 약물중독, 알콜중독, 자살, 자살기도 등과 같은 우울성향을 나타냈다는 많은 연구보고가 있다(이병하, 1994; Andersen, 1990; Jaffe, 1986; Straus, 1978).

Windle(1991)은 279명의 15~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문제적 성격요인인 강직성, 주의 집중장애, 행동양상의 불규칙성과 약물남용, 지각된 가족지지, 문제성 행위와의 관계 분석에서 문제적 성격 요인은 높은 약물남용, 낮은 가족지지, 높은 우울증상, 높은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문화적 특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로 Maton 등(1996)은 미국 백인 대학생에서 보다 흑인 대학생들에서 가족지지가 교육기관과 목표주도성에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부모지지가 영적 지지가 백인 대학생에서 보다 흑인 대학생에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Jung & Khalsa(1989)의 연구결과에서도 백인 대학생들은 가족으로부터 보다는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더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흑인 학생들은 이와 반대의 양상을 지각하였고 흑인 대학생들에서 우울이 낮게 나타남으로서 지각된 가족지지가 우울과 역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하와이 본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인과 문제를 토의하는 것에 의한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는 우울 점수를 낮추었으나 약물남용과 호전성 점수는 낮추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Nahulu外, 1996). 또한 하와이 본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변태적 증상과 자살기도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우울, 불안, 공격, 물질남용증상, 낮은 가족지지와 자살기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친구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를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다(Yeun外, 1996). 자살을 기도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족외인에 의한 지지보다는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체제가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울증상의 예측치로 가족지지를 포함한 친구,

가족외 성인의 사회적 지지를 333명의 14~18세 고등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각된 가족지지의 정도는 성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에서 남학생에서 보다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여학생에서 가족외인의 지지가 우울증상을 변화시키는 예측치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에서는 여학생에서와 같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학생에서는 가족지지가 우울증상의 변화예측치로 사용될 수 있으나 남학생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Slavin & Rainer, 1990). 또한 청소년의 가족지지, 가족갈등, 우울증상의 관계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증상이 가족관계의 붕괴를 예견하지는 못했으며 가족상호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우울 증상 발달의 이해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Sheeber, 1997).

가족과 가족외인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을 저해하는 질병의 심각정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불안과 우울정도를 높이고 정신건강정도, 사회적 건강, 자존감을 낮추는 질병의 심각정도에 2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한 연구보고가 있다(Parkerson 외, 1991).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불안과 우울정도를 높이는 정신적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1개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59개 문항으로써,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문항, 우울 20문항, 가족지지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가족지지 측정 도구

청소년의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oos(1974)의 Family Environment Scale (F.E.S)중 Form R을 심문숙(1990)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23개 문항을 다시 본 연구자가 5명의 간호학 교수에게 의뢰해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 보완한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긍정적 문항은 '아주 많이 그렇다' 5점, '많이 그렇다' 4점, '보통 그렇다' 3점, '약간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고, 부정적 문항은 이와 반대로 점수를 주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1점에서 최고 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우울 측정 도구

청소년 대상자의 우울 측정은 Zung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을 송옥현(1977)이 번안 발표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감정에 관한 것 2문항, 신체 증상에 관한 것 8문항, 정신증상에 관한 것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10문항은 증상과 동일한 질문을, 다른 10문항은 증상과 반대되는 질문을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긍정적 문항은 '항상 그렇다'에 1점, '자주 그렇다'에 2점, '가끔 그렇다'에 3점, '아니다'에 4점을 주고,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으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전체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범위를 보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 및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관계는 T-test와 1-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들의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교계열은 실업계가 156명(50.6%), 인문계가 152명(49.4%)으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더 많았고, 연령은 18세 이상이 157명(51.0%), 17세가 126명(40.9%), 15-16세가 25명(8.1%)의 순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157명(51.0%), 여자가 151명(49.0%)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09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98명(31.8%), 불교 62명(20.1%), 천주교 31명(10.1%), 기타 7명(2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 161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 81명(26.3%)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66명(21.4%)이었다. 출생순위는 막내가 135명(43.8%), 맏이가 107명(34.7%), 중간이 50명(16.2%), 독자가 16명(5.2%)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생존여부는 부모가 모두 생존하신 경우가 294명(9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모생존이 12명(3.9%),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1명(0.3%), 편부생존이 1명(0.3%)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월수입은 101-150만원이 96명(31.2%), 51-100만원과 151-200만원이 66명(21.4%)으로 같게 나왔으며 200만원 이상이 53명(17.2%)으로 나타났다.

가족제도는 핵가족이 281명(91.2%), 대가족이 27명(8.8%)으로 핵가족이 훨씬 더 많았으며, 주거지역은 주택가 155명(50.3%), 아파트단지 145명(47.1%), 상가 6명(1.9%), 유흥지대 2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친직업은 상업이 71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61명(19.8%), 기타 58명(18.8%), 전문직이 39명(12.7%), 노동 26명(8.4%), 교원 17명(5.5%), 농업 15명(4.9%), 공업 12명(3.9%), 무직 9명(2.9%)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친의 직업은 있는 경우가 169명(54.9%)으로 없는 경우 139명(45.1%)보다 더 많았다.

부친의 교육수준은 고졸 139명(45.1%), 대졸이상 76명(24.7%), 중졸 62명(20.1%), 국졸 25명(8.1%), 전문대졸 6명(1.9%) 순이며, 모친의 교육수준은 고졸 146명(47.4%), 중졸 96명(31.2%), 국졸 38명(12.3%) 대졸이상 22명(7.1%), 전문대졸 5명(1.6%), 무학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장시 기거장소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293명(9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척집 9명(2.9%), 자취 4명(1.3%), 하숙 1명(0.3%), 사회복지관 1명(0.3%)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부모의 부부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275명(8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이혼하였다와 부모가 별거중일 때가 있었다는 각각 14명(4.5%)으로 같았고, 계모슬하에서 성장한 경우는 3명(1.0%), 계부슬하에서 성장한 경우는 2명(0.6%)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진로문제 139명(45.1%), 학교성적문제 96명(31.2%)으로 역시 진학과 관련한 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 29명(9.4%), 이성문제 25명(8.1%), 성격문제 13명(4.2%), 건강문제 6명(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은 문제가 없다가 97명(31.5%),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91명(29.5%), 경제적으로 어렵다 77명(25.0%),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12명(3.9%),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12명(3.9%), 집안에 우환이 있다 11명(3.6%), 부모 사이가 나쁘다 8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지지 및 우울 정도의 측정치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최소 21점, 최대 96점, 평균 61.26, 표준편차 14.45로서 대상자가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최소 23점, 최대 67점, 평균 43.74, 표준편차 8.04로서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내 용    | 구 분       | 실 수 | %    |
|--------|-----------|-----|------|
| 학교계열   | 실업계       | 156 | 50.6 |
|        | 인문계       | 152 | 49.4 |
| 연 령    | 15-16세    | 25  | 8.1  |
|        | 17세       | 126 | 40.9 |
|        | 18세이상     | 157 | 51.0 |
| 성 별    | 남         | 157 | 51.0 |
|        | 여         | 151 | 49.0 |
| 종 교    | 기독교       | 98  | 31.8 |
|        | 불교        | 62  | 20.1 |
|        | 천주교       | 31  | 10.1 |
|        | 유교        | 1   | 0.3  |
|        | 무교        | 109 | 35.4 |
|        | 기타        | 7   | 2.3  |
| 학 년    | 고 1학년     | 66  | 21.4 |
|        | 고 2학년     | 161 | 52.3 |
|        | 고 3학년     | 81  | 26.3 |
| 출생순위   | 말이        | 107 | 34.7 |
|        | 중간        | 50  | 16.2 |
|        | 막내        | 135 | 43.8 |
|        | 독자        | 16  | 5.2  |
| 부모생존여부 | 부모생존      | 294 | 95.5 |
|        | 부모사망      | 1   | 0.3  |
|        | 편부생존      | 1   | 0.3  |
|        | 편모생존      | 12  | 3.9  |
| 가족월수입  | 50만원이하    | 27  | 8.8  |
|        | 51-100만원  | 66  | 21.4 |
|        | 101-150만원 | 96  | 31.2 |
|        | 151-200만원 | 66  | 21.4 |
|        | 200만원이상   | 53  | 17.2 |
| 가족제도   | 핵가족       | 281 | 91.2 |
|        | 대가족       | 27  | 8.8  |
| 주거지역   | 주택가       | 155 | 50.3 |
|        | 아파트단지     | 145 | 47.1 |
|        | 상가        | 6   | 1.9  |
|        | 공장지대      | 0   | 0    |
|        | 유흥지대      | 2   | 0.6  |
| 부친직업   | 전문직       | 39  | 12.7 |
|        | 회사원       | 61  | 19.8 |
|        | 교원        | 17  | 5.5  |
|        | 상업        | 71  | 23.1 |
|        | 농업        | 15  | 4.9  |
|        | 공업        | 12  | 3.9  |
|        | 노동        | 26  | 8.4  |
|        | 무직        | 9   | 2.9  |
|        | 기타        | 58  | 18.8 |

| 내 용              | 구 분             | 실 수  | %    |
|------------------|-----------------|------|------|
| 모친의 직업           | 유               | 169  | 54.9 |
|                  | 무               | 139  | 45.1 |
| 부친의 교육수준         | 무학              | 0    | 0    |
|                  | 국졸              | 25   | 8.1  |
|                  | 중졸              | 62   | 20.1 |
|                  | 고졸              | 139  | 45.1 |
|                  | 전문대졸            | 6    | 1.9  |
|                  | 대학졸이상           | 76   | 24.7 |
| 모친의 교육수준         | 무학              | 1    | 0.3  |
|                  | 국졸              | 38   | 12.3 |
|                  | 중졸              | 96   | 31.2 |
|                  | 고졸              | 146  | 47.4 |
|                  | 전문대졸            | 5    | 1.6  |
|                  | 대학졸이상           | 22   | 7.1  |
| 성장시기거장소          | 부모와함께           | 293  | 95.1 |
|                  | 친척집             | 9    | 2.9  |
|                  | 자취              | 4    | 1.3  |
|                  | 하숙              | 1    | 0.3  |
|                  | 사회복지관           | 1    | 0.3  |
|                  | 주거부정            | 0    | 0    |
| 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 기타              | 0    | 0    |
|                  | 부모가 이혼하였다       | 14   | 4.5  |
|                  | 부모가 별거중일 때가 있었다 | 14   | 4.5  |
|                  | 계부 슬하였다         | 2    | 0.6  |
|                  | 계모 슬하였다         | 3    | 1.0  |
|                  |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275  | 89.3 |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 진로문제            | 139  | 45.1 |
|                  | 이성문제            | 25   | 8.1  |
|                  | 건강문제            | 6    | 1.9  |
|                  | 성격문제            | 13   | 4.2  |
|                  | 학교성적문제          | 96   | 31.2 |
|                  |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   | 29   | 9.4  |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 경제적으로 어렵다       | 77   | 25.0 |
|                  |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 12   | 3.9  |
|                  | 집안에 우환이 있다      | 11   | 3.6  |
|                  |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 12   | 3.9  |
|                  | 부모 사이가 나쁘다      | 8    | 2.6  |
|                  |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 91   | 29.5 |
| 문제가 없다           | 97              | 31.5 |      |

〈표 2〉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  
N=308

|      | 최소치   | 최대치   | 평균    | 표준편차  |
|------|-------|-------|-------|-------|
| 가족지지 | 21.00 | 96.00 | 61.26 | 14.45 |
| 우울   | 23.00 | 67.00 | 43.74 | 8.04  |

###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지지 및 우울과의 관계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학교제일, 연령, 가족월수입, 모친의 교육수준, 성장시 기거장소,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등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제일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t=-2.02, p<.05$ ), 연령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15-16세, 17세, 18세이상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아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f=5.47, p<.01$ ),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보호와 가족의 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월수입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200만원이상, 151-200만원, 101-150만원, 50만원이하, 51-100만원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가족월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2.49, p<.05$ ).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의 차이는 전문대졸, 대학졸이상, 고졸, 중졸, 국졸, 무학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f=3.01, p<.05$ ), 성장시 기거장소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의 차이는 자취, 친척집, 부모와 함께, 하숙, 사회복지관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2.87, p<.05$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의 차이는 건강문제, 학교성적문제, 진로문제, 성격문제, 학교나 사회생활적응문제, 이성문제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f=7.73, p<.001$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부모사이가 나쁘다,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는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f=7.38, p<.001$ ).

####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성별, 모친의 교육수준, 성장시 기거장소,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t=-2.91, p<.01$ ), 모친의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무학, 중졸, 국졸, 고졸, 대학졸이상, 전문대졸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F=2.53, p<.05$ ),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성장시 기거장소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사회복지관, 하숙, 부모와 함께, 친척집, 자취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F=3.95, p<.01$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보면 성격문제나 학교나 사회생활적응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우울 정도를 나타내었고, 그 외에는 이성문제, 건강문제, 진로문제, 학교성적문제의 순으로 높은 우울 정도를 보여주었다( $F=3.68, p<.01$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는 집안에 우환이 있다,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부모 사이가 나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순으로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나( $F=4.58, p<.001$ ),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형제간의 사이가 나쁠 때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높아지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지할 때 청소년들의 우울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

N=308

| 특 성         | 구 분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 or F | P      |
|-------------|-----------|-----|-------|-------|--------|--------|
| 학교계열        | 실업계       | 156 | 44.37 | 6.50  | 1.39   | 0.1632 |
|             | 인문계       | 152 | 43.09 | 9.33  |        |        |
| 연 령         | 15-16세    | 25  | 44.08 | 8.28  | 0.03   | 0.9677 |
|             | 17세       | 126 | 43.64 | 7.17  |        |        |
|             | 18세이상     | 157 | 43.77 | 8.69  |        |        |
| 성 별         | 남         | 157 | 42.45 | 8.17  | -2.91  | 0.0038 |
|             | 여         | 151 | 45.09 | 7.70  |        |        |
| 종 교         | 기독교       | 98  | 43.29 | 8.16  | 0.41   | 0.8447 |
|             | 불교        | 62  | 43.79 | 8.61  |        |        |
|             | 천주교       | 31  | 43.96 | 8.02  |        |        |
|             | 유교        | 1   | 40.00 | .     |        |        |
|             | 무교        | 109 | 44.29 | 7.76  |        |        |
|             | 기타        | 7   | 40.71 | 6.96  |        |        |
| 학 년         | 고 1학년     | 66  | 43.31 | 7.38  | 1.33   | 0.2664 |
|             | 고 2학년     | 161 | 43.04 | 8.42  |        |        |
|             | 고 3학년     | 81  | 44.67 | 7.73  |        |        |
| 출생순위        | 말이        | 107 | 43.54 | 8.40  | 0.96   | 0.4099 |
|             | 중간        | 50  | 44.16 | 7.04  |        |        |
|             | 막내        | 135 | 43.38 | 8.22  |        |        |
|             | 독자        | 16  | 46.87 | 6.82  |        |        |
| 부모생존<br>여 부 | 부모생존      | 294 | 43.66 | 8.05  | 0.21   | 0.8862 |
|             | 부모사망      | 1   | 46.00 | .     |        |        |
|             | 편부생존      | 1   | 45.00 | .     |        |        |
|             | 편모생존      | 12  | 45.41 | 8.56  |        |        |
| 가 족<br>월 수입 | 50만원이하    | 27  | 45.11 | 6.79  | 1.94   | 0.1039 |
|             | 51-100만원  | 66  | 44.89 | 7.90  |        |        |
|             | 101-150만원 | 96  | 44.79 | 8.03  |        |        |
|             | 151-200만원 | 66  | 43.54 | 6.90  |        |        |
|             | 200만원이상   | 53  | 41.22 | 9.68  |        |        |
| 가족제도        | 핵가족       | 281 | 43.74 | 8.15  | 0.0041 | 0.9968 |
|             | 대가족       | 27  | 43.74 | 6.95  |        |        |
| 주거지역        | 주택가       | 155 | 43.81 | 7.52  | 0.37   | 0.7723 |
|             | 아파트단지     | 145 | 43.74 | 8.30  |        |        |
|             | 상가        | 6   | 40.83 | 8.23  |        |        |
|             | 공장지대      | 0   | 0     | 0     |        |        |
|             | 유흥지대      | 2   | 47.00 | 28.28 |        |        |
| 부친직업        | 전문직       | 39  | 44.41 | 7.17  | 1.37   | 0.2100 |
|             | 회사원       | 61  | 42.70 | 7.94  |        |        |
|             | 교원        | 17  | 42.35 | 9.64  |        |        |
|             | 상업        | 71  | 44.63 | 7.74  |        |        |
|             | 농업        | 15  | 43.00 | 6.76  |        |        |
|             | 공업        | 12  | 43.00 | 6.78  |        |        |
|             | 노동        | 26  | 46.26 | 9.53  |        |        |
|             | 무직        | 9   | 48.55 | 10.50 |        |        |
|             | 기타        | 58  | 42.18 | 7.74  |        |        |

<표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계속)

N=308

| 내 용              |                | 구분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 or F | P      |
|------------------|----------------|----|-----|-------|-------|--------|--------|
| 모친의 직업           | 유              |    | 169 | 61.18 | 14.67 | -0.11  | 0.9085 |
|                  | 무              |    | 139 | 61.37 | 14.22 |        |        |
| 부친의 교육수준         | 무학             |    | 0   | 0     | 0     | 2.12   | 0.0783 |
|                  | 국졸             |    | 25  | 54.68 | 16.61 |        |        |
|                  | 중졸             |    | 62  | 60.50 | 13.25 |        |        |
|                  | 고졸             |    | 139 | 61.51 | 14.16 |        |        |
|                  | 전문대졸           |    | 6   | 57.50 | 14.12 |        |        |
|                  | 대학졸이상          |    | 76  | 63.90 | 14.76 |        |        |
| 모친의 교육수준         | 무학             |    | 1   | 21.00 | .     | 3.01   | 0.0115 |
|                  | 국졸             |    | 38  | 55.81 | 15.16 |        |        |
|                  | 중졸             |    | 96  | 62.04 | 13.83 |        |        |
|                  | 고졸             |    | 146 | 62.06 | 13.29 |        |        |
|                  | 전문대졸           |    | 5   | 65.00 | 19.78 |        |        |
|                  | 대학졸이상          |    | 22  | 63.04 | 18.49 |        |        |
| 성장시 기거장소         | 부모와함께          |    | 293 | 61.23 | 14.27 | 2.87   | 0.0235 |
|                  | 친척집            |    | 9   | 62.44 | 16.05 |        |        |
|                  | 자취             |    | 4   | 73.50 | 8.50  |        |        |
|                  | 학숙             |    | 1   | 51.00 | .     |        |        |
|                  | 사회복지관          |    | 1   | 21.00 | .     |        |        |
|                  | 주거부정           |    | 0   | 0     | 0     |        |        |
|                  | 기타             |    | 0   | 0     | 0     |        |        |
| 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 부모가 이혼하였다      |    | 14  | 58.07 | 12.66 | 1.81   | 0.1270 |
|                  | 부모가 별거중일때가 있었다 |    | 14  | 59.07 | 20.65 |        |        |
|                  | 계부 슬하였다        |    | 2   | 56.00 | 5.65  |        |        |
|                  | 계모 슬하였다        |    | 3   | 41.66 | 19.42 |        |        |
|                  |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 275 | 61.79 | 14.06 |        |        |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 진로문제           |    | 139 | 61.79 | 12.93 | 7.73   | 0.0001 |
|                  | 이성문제           |    | 25  | 49.84 | 12.88 |        |        |
|                  | 건강문제           |    | 6   | 68.66 | 16.34 |        |        |
|                  | 성격문제           |    | 13  | 57.30 | 12.92 |        |        |
|                  | 학교성적문제         |    | 96  | 65.73 | 15.17 |        |        |
|                  |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  |    | 29  | 54.03 | 12.72 |        |        |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 경제적으로 어렵다      |    | 77  | 60.61 | 14.52 | 7.38   | 0.0001 |
|                  |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    | 12  | 53.58 | 14.58 |        |        |
|                  | 집안에 우환이 있다     |    | 11  | 51.36 | 16.50 |        |        |
|                  |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    | 12  | 48.08 | 13.30 |        |        |
|                  | 부모 사이가 나쁘다     |    | 8   | 55.75 | 12.83 |        |        |
|                  |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    | 91  | 59.58 | 12.99 |        |        |
|                  | 문제가 없다         |    | 97  | 67.53 | 13.10 |        |        |

<표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

N=308

| 특 성         | 구 분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 or F | P      |
|-------------|-----------|-------|-------|-------|--------|--------|
| 학교계열        | 실업계       | 156   | 44.37 | 6.50  | 1.39   | 0.1632 |
|             | 인문계       | 152   | 43.09 | 9.33  |        |        |
| 연 령         | 15-16세    | 25    | 44.08 | 8.28  | 0.03   | 0.9677 |
|             | 17세       | 126   | 43.64 | 7.17  |        |        |
|             | 18세이상     | 157   | 43.77 | 8.69  |        |        |
| 성 별         | 남         | 157   | 42.45 | 8.17  | -2.91  | 0.0038 |
|             | 여         | 151   | 45.09 | 7.70  |        |        |
| 종 교         | 기독교       | 98    | 43.29 | 8.16  | 0.41   | 0.8447 |
|             | 불교        | 62    | 43.79 | 8.61  |        |        |
|             | 천주교       | 31    | 43.96 | 8.02  |        |        |
|             | 유교        | 1     | 40.00 | .     |        |        |
|             | 무교        | 109   | 44.29 | 7.76  |        |        |
|             | 기타        | 7     | 40.71 | 6.96  |        |        |
| 학 년         | 고 1학년     | 66    | 43.31 | 7.38  | 1.33   | 0.2664 |
|             | 고 2학년     | 161   | 43.04 | 8.42  |        |        |
|             | 고 3학년     | 81    | 44.67 | 7.73  |        |        |
| 출생순위        | 만이        | 107   | 43.54 | 8.40  | 0.96   | 0.4099 |
|             | 중간        | 50    | 44.16 | 7.04  |        |        |
|             | 막내        | 135   | 43.38 | 8.22  |        |        |
|             | 독자        | 16    | 46.87 | 6.82  |        |        |
| 부모생존<br>여 부 | 부모생존      | 294   | 43.66 | 8.05  | 0.21   | 0.8862 |
|             | 부모사망      | 1     | 46.00 | .     |        |        |
|             | 편부생존      | 1     | 45.00 | .     |        |        |
|             | 편모생존      | 12    | 45.41 | 8.56  |        |        |
| 가 족<br>월 수입 | 50만원이하    | 27    | 45.11 | 6.79  | 1.94   | 0.1039 |
|             | 51-100만원  | 66    | 44.89 | 7.90  |        |        |
|             | 101-150만원 | 96    | 44.79 | 8.03  |        |        |
|             | 151-200만원 | 66    | 43.54 | 6.90  |        |        |
|             | 200만원이상   | 53    | 41.22 | 9.68  |        |        |
| 가족제도        | 핵가족       | 281   | 43.74 | 8.15  | 0.0041 | 0.9968 |
|             | 대가족       | 27    | 43.74 | 6.95  |        |        |
| 주거지역        | 주택가       | 155   | 43.81 | 7.52  | 0.37   | 0.7723 |
|             | 아파트단지     | 145   | 43.74 | 8.30  |        |        |
|             | 상가        | 6     | 40.83 | 8.23  |        |        |
|             | 공장지대      | 0     | 0     | 0     |        |        |
|             | 유흥지대      | 2     | 47.00 | 28.28 |        |        |
| 부친직업        | 전문직       | 39    | 44.41 | 7.17  | 1.37   | 0.2100 |
|             | 회사원       | 61    | 42.70 | 7.94  |        |        |
|             | 교원        | 17    | 42.35 | 9.64  |        |        |
|             | 상업        | 71    | 44.63 | 7.74  |        |        |
|             | 농업        | 15    | 43.00 | 6.76  |        |        |
|             | 공업        | 12    | 43.00 | 6.78  |        |        |
|             | 노동        | 26    | 46.26 | 9.53  |        |        |
|             | 무직        | 9     | 48.55 | 10.50 |        |        |
| 기타          | 58        | 42.18 | 7.74  |       |        |        |

<표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계속)

N=308

| 내 용              | 구분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 or F | P      |
|------------------|----------------|-----|-------|-------|--------|--------|
| 모친의 직업           | 유              | 169 | 43.68 | 8.03  | -0.15  | 0.8736 |
|                  | 무              | 139 | 43.82 | 8.08  |        |        |
| 부친의 교육수준         | 무학             | 0   | 0     | 0     | 1.79   | 0.1306 |
|                  | 국졸             | 25  | 45.36 | 8.02  |        |        |
|                  | 중졸             | 62  | 43.88 | 7.30  |        |        |
|                  | 고졸             | 139 | 44.46 | 7.70  |        |        |
|                  | 전문대졸           | 6   | 44.66 | 9.24  |        |        |
|                  | 대학졸이상          | 76  | 41.71 | 8.93  |        |        |
| 모친의 교육수준         | 무학             | 1   | 67.00 | .     | 2.53   | 0.0291 |
|                  | 국졸             | 38  | 43.92 | 7.39  |        |        |
|                  | 중졸             | 96  | 44.58 | 7.90  |        |        |
|                  | 고졸             | 146 | 43.43 | 7.96  |        |        |
|                  | 전문대졸           | 5   | 39.60 | 7.50  |        |        |
|                  | 대학졸이상          | 22  | 41.72 | 8.97  |        |        |
| 성장시 기거장소         | 부모와함께          | 293 | 43.86 | 7.91  | 3.95   | 0.0039 |
|                  | 친척집            | 9   | 40.44 | 8.26  |        |        |
|                  | 자취             | 4   | 35.25 | 4.27  |        |        |
|                  | 하숙             | 1   | 51.00 | .     |        |        |
|                  | 사회복지관          | 1   | 67.00 | .     |        |        |
|                  | 주거부정           | 0   | 0     | 0     |        |        |
|                  | 기타             | 0   | 0     | 0     |        |        |
| 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 부모가 이혼하였다      | 14  | 41.42 | 5.44  | 1.94   | 0.1031 |
|                  | 부모가 별거중일때가 있었다 | 14  | 49.00 | 10.37 |        |        |
|                  | 계부 슬하였다        | 2   | 47.00 | 14.14 |        |        |
|                  | 계모 슬하였다        | 3   | 45.00 | 14.00 |        |        |
|                  |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275 | 43.56 | 7.87  |        |        |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 진로문제           | 139 | 42.96 | 7.04  | 3.68   | 0.0030 |
|                  | 이성문제           | 25  | 44.76 | 9.70  |        |        |
|                  | 건강문제           | 6   | 44.33 | 5.71  |        |        |
|                  | 성격문제           | 13  | 48.46 | 5.68  |        |        |
|                  | 학교성적문제         | 96  | 42.56 | 8.18  |        |        |
|                  |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문제  | 29  | 48.31 | 9.83  |        |        |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 경제적으로 어렵다      | 77  | 44.67 | 7.60  | 4.58   | 0.0002 |
|                  | 형제간 사이가 나쁘다    | 12  | 49.25 | 9.62  |        |        |
|                  | 집안에 우환이 있다     | 11  | 50.63 | 8.59  |        |        |
|                  | 부모가 자식을 불신임한다  | 12  | 47.41 | 9.15  |        |        |
|                  | 부모 사이가 나쁘다     | 8   | 45.25 | 6.34  |        |        |
|                  |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 91  | 43.21 | 7.97  |        |        |
|                  | 문제가 없다         | 97  | 41.46 | 7.30  |        |        |

####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r=-0.4469, p<.001$ ). 즉,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는 <표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가족의 친밀성이 없으면 불안, 우울이 나타난다고 한 Moose (1976)의 연구와 일치하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현숙(1984)의 연구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태영숙(1985)의 연구에서 가족지지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표 5>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와 우울 정도와의 상관관계 N=308

| 우울   |             |
|------|-------------|
| 가족지지 | - 0.4469*** |

\*\*\* $p < 0.001$

## V. 결론 및 제언

### 1.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지지와 우울 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간호에서 가족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1개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59개 문항으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문항, 우울 20문항, 가족지지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Moos(1974)의 F.E.S(Family Environment

Scale)중 Form R을 심문숙(1990)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23개 문항을 다시 본 연구자가 21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Zung의 Self-Rating Depression Scale(자가평가 우울)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T-test, 1-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가설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r=-0.4469, p < .001$ ).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지지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학교계열( $t=-2.02, p<.05$ ), 연령( $F=5.47, p<.01$ ), 가족월수입( $F=2.49, p<.05$ ), 모친의 교육수준( $F=3.01, p<.05$ ), 성장시 기거장소( $F=2.87, p<.05$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F=7.73, p<.001$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F=7.38, p<.001$ )등이었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성별( $t=-2.91, p<.01$ ), 모친의 교육수준( $F=2.53, p<.05$ ), 성장시 기거장소( $F=3.95, p<.01$ ), 현재의 가장 큰 당면문제( $F=3.68, p<.01$ ),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내 문제점( $F=4.58, p<.001$ )등이었다.

4.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최소 21.00점, 최대 96.00점, 평균 61.26, 표준편차 14.45를 나타냈으며, 우울 정도는 최소 23.00점, 최대 67.00점, 평균 43.74, 표준편차 8.04를 나타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가족지지를 높여줌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고 완화시킬수 있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하며 발전적이고 안정된 청소년기를 보낼수 있도록 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요인을 광범위하게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가족지지에 대한 간호중재의 효과를 규명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현숙(1984), 재활강화 교육이 편마비환자의 자기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구미옥, 유계순, 권인자, 김혜원, 이은옥(1994), 자기효능 이론이 적용된 건강행위 관련 연구의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4(2):278-293

김계숙, 김희숙(1995), 아동간호학, 서울 : 신광출판사

김금자(1989), 입원환자의 스트레스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연구. 예수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3(1):29-56

김란, 박명희(1893),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관계연구. 조선대 병설 간호전문대 논문집, 12:1-19

김명애(1984), 청소년기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한 간호 중재. 대한간호, 23(2):20-25

김문실(1985), 청소년 건강 :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24(3):6-10

김미선, 김미영, 박선영, 박진숙, 홍윤정, 황경아(1990), 이화간호학회지, 23:60-76

김수지, 고성희(1989), 우울발생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간호학회지, 19(2):173-190

김수지, 노춘희(1990),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대한간호, 29(2):11-15

김순오(1986), 하반신 마비 환자의 가족지지, 우울 및 자가간호활동과의 관계 연구 : 산업재해

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 석사학위 논문

김창숙(1991), 만성질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 석사학위 논문

나철, 이충원, 이길홍, 민병근(1976), 청소년기의 정신과적 응급 질환에 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5(2):50-67

남가실(1988), 유방절제술 환자와 자궁절제술 환자의 배우자 지지 정도와 신체상과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남승희 편역(1992), 청소년은 누구인가?, 서원, 30

민성길, 조강주(1977), 정신과의뢰에 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6:223-228

박오장, 홍미순, 장금성, 김지영(1998), 사회적 지지가 고혈압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과 지지요법 효과의 지속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159-170

박원숙(1996), 고관절 부분 치환술 노인환자의 가족지지, 우울, 자가 간호활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 석사학위 논문

송옥현(1977), 정신과 외래환자의 S.D.S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6(1):84-93

신성례(1997), 청소년들의 흡연량 자가보고와 소변코티닌과의 관계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9(3):495-504

심문숙(1989), 암 환자의 가족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광자(1983), 정신간호학, 서울:신광출판사, 1-7

이미화(1990), 노인의 만성건강문제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5:13-24

이병하(1994),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 가정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부영(1987), 행동과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상주(1983), 기성세대와 청소년, 제5회 복지사회 신포지움 발표문
- 이정균(1988), 정신의학, 서울:일조각
- 이창섭(1976), 청소년의 정신 장애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6(2):168-174
- 전시자(1998),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국립의료원 논문집, 10(3):125-147
- 정석자(1996), 암환자의 가족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성덕(1983),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22(2):265-274
- 정여숙(1991), 혈액투석환자의 가족지지에 대한 지각과 치료지시 이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연희(1996), 당뇨병환자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과 환자역할행위 이행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127-135
- 최영희(1984), 지지적인 간호중재가 가족지지 행위와 환자역할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태영숙(1986), 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양숙(1990),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대한간호, 29(2):6-10
- 한인경(1990), 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환자역할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경자(1984),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원의 역할. 대한간호, 23(2):15-19
- Andersen, M.L., 이동원, 김미숙(1990), 성의 사회학,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18-219
- Atiken, P.P.(1978), Ten to Fourteen Years Olds and Alcohol. 13, London : HMSO.
- Boyd, J.H. & Weissman, M.(1981), Epidemiology of affective disorders, a reexamination and future direc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8:1039-1046
- Carplan, G.(1976), The family as a support system and Mutual helps : Multi Exploration,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300-314
- Erikson, E.(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Amer. J. Psychoanal. Asso., 4: 56-121
- Erikson, E.(1967), Identity ; Youth and crisis, w.w. Norton, Co, Inc., 91-141
- Feldman, L.B.(1976), Depression and Merital interaction, Fram. Proc., 15, 389
- Freud, A.(1928), Introduction to the Technique of Child Analysis, New York : Nervous and Mental Disease Publication, 633
- Friedman, M.M.(1986), Family Nursing theory and Assessment, 2nd ed., New york, Acc.
- Gilliss, C.L.(1991), Family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2:19-22
- Hamberg, D.A.(1967),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Archives Gen. Psychiatry, 17: 277-284
- Holland, J.C.(1989), Clinical course of cancer. In J. C. Holland & J. H. Rowland(Eds.), Handbook of Psycho-oncology : Psychological Care of the Patient with Cancer,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75-100
- Hurlock(1955), Adolescent development, 2nd ed., New york : MC. Grew-Hill Book Co., 11-18
- Hymovich, D.C.(1974), Incooperating the Family into Care. Journal NYNSA, 5(1): 9-10

- Jaffe, P.(1986), Family violence and child adjustment : a comparative analysis of girls' and boys' behavior sympto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1): 74-77
- Johnson, R.(1988), Family development theories. In Stanhope, M., Lancaster, J. (Eds.), *Community Health nursing*, 2nd ed., Mosby, 352-370
- Jung, J. & Khalsa, H.K.(1989), The relationship of daily hassles, social support, and coping to depression in black and white students, *J Gen Psychol.*, 116(4):407-417
- Kolb, L.C.(1973), *Modern clinical psychiatry*, 8th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412-425, 530-550
- Lids, T., fleck, S. and Cornelson, A.S.(1965), *Schizophrenia and the Family*,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N.Y.
- Materson, J.F.(1968), The psychiatric significance of adolescent turmoi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4, 11
- Maton K.I., Teti D.M., Corns K.M., Vieira-Baker C.C., Lavine J.R., Gouze K.R., Keating D.P.(1996), Cultural specificity of support sources, correlates and contexts : three studies of African-American and caucasian youth. *Am J Community Psychol*, 24(4):551-587
- Milligan, R.A.K., Burke, V., Belilin, L.J., Richards, J., Dunbar, D., Spencer, M., Balde, E. & Gracey, M.P.(1997), Health-related behaviour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18 year-old Australians. *Social Science Medicine*. 45(10):1549-1562
- Moose, B.S. & Moos, R.H.(1976),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 *Family Pross*, 15(4):357-371
- Mueller, D.P.(1980). *Social Network,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4:147-161
- Nahulu L.B., Andrade N.N., Makini G.K. Jr, Yuen N.Y., McDermott J.F. Jr, Danko G.P., Johnson R.C., Waldron J.A.(1996), Psychosocial risk and protective influences in Hawaiian adolescent psychopathology. *Cult Divers Ment Health*, 2(2):107-114
- Neuman, P., and B., neuman(1976), Early Adolescence and Its Cqazonflict, *Group Identity vs Alienation, Adolescence*, 11: 261-274
- Parkerson G.R. Jr. & Broadhead W.E., Tse Ck(1991). Validation of the Duke Social Support and Stress Scale. *Fam Med*, 23(5):357-360
- Pasacreta, J.V.(1997), Depressive phenomena, physical symptom distress, and functional status among women with breast cancer. *Nursing Research*, 46(4):214-220
- Rice(197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Boston : Allyn and Bacon.
- Sheeber L., Hops H., Alpert A., Davis B., Andrews J.(1997), Family support and conflict : prospective relations to adolescent depression. *J Abnorm Child Psychol*, 25(4):333-344
- Slavin, L.A. & Rainer, K.L.(1990),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 a prospective analysis. *Am J Community Psychol*, 18(3):407-421
- Straus(1978). *Wife beating : How common and why?*, *Victimology*, 2:443-458
- Stuart G.W. & Sundeen S.J.(1987),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3rd ed., Mosby
- Werkman. S.L.(1974), *Psychiatric disorders of Adolescence*. In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Ariet, S. & Caplan, G., N.Y., Basic Book Inc., 223  
Windle, M.(1991), The difficult temperament in adolescence : associations with substance use, family support, and problem behaviors. J Clin Psychol, 47(2): 310-315

Yeun N., Andrade N., Nahulu L., Makini G., McDermott J.F., Danko G., Johnson R., Waldron J.(1996), The rate and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in the native Hawaiian adolescent population. Suicide Life Threat Behav, 26(1):27-36

---

= **ABSTRACT**=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n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Myung Hee Park, Chang Sook Kim** (Chosun College of Nursing)

**Young Sook Suh** (Dept. of Nursing, Dong Shin University)

**Hee Sook Suh** (Dept. of Nursing, Dong Kang College)

**Hyun Shin No** (Kwangju Commercial Girls' High School)

Present study was attemp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r needs of family support in psychological care especially among adolescents.

Study subjects comprized of 308 high school students including vocational students in part, and data collection was done in the Kwangju City area in April, 1998.

The Moos Family Environment Scale and the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modified by investigators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of 59 item questionnaire and in data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of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tilized.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hypothesis of the study, "the higher the degree of perceived family support among adolescents, the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was supported( $r=-0.4469$ ,  $p<.001$ ).

2. Some variabl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degree of family suppor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school division of vocational vs non-vocational( $t=-2.02$ ,  $p<.05$ ), age( $f=5.47$ ,  $p<.01$ ), family monthly income( $f=2.49$ ,  $p<.05$ ), mother's level of education( $f=3.01$ ,  $p<.05$ ), residence at developmental stage( $f=2.87$ ,  $p<.05$ ), personal problem of highest priority at present( $f=7.73$ ,  $p<.001$ ), and family problem perceived by adolescents( $f=7.38$ ,  $p<.001$ ).

3. Items in gene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level of depress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ere sex( $t=-2.91$ ,  $p<.01$ ), mother's level of education( $f=2.53$ ,  $p<.05$ ), residence at developmental stage( $f=3.95$ ,  $p<.01$ ), present personal problem of highest priority( $f=3.68$ ,  $p<.11$ ), and perceived in-family problem( $f=4.58$ ,  $p<.001$ ).

4. The mean score of the degree of perceived family support was 61.26( $SD=\pm 14.45$ ) in a range of 21.00 to 96.00 ; that of the level of depression, 43.74( $SD=\pm 8.04$ ) in a range of 23.00 to 67.00, which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perceived family support, the lower the level of depression.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family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is a variable affecting the level of depression.

Based on the study outcome, further research suggestions can be made as such that repeated studies are needed in order to delineat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and a study involving family support implementation program is required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ecurity among adolescents.

---

Key concept : perceived family support, depression, adolescence.